

국어 오직 시험의 감을 위한, 수능 Item!

시험의 법칙

최영수 지음

Rule



지문을 읽기 전에, 정답의 감(感)을 찾는 7가지 법칙

Rule track

I. 발문-선지의 유형	009
II. 선지 오류의 유형	039
III. 보기-선지의 유형	063
IV. 선(先) 꼬리 유형	095
V. 일탈 선지의 유형	137
VI. 대립 선지의 유형	161
VII. 공통 선지의 유형	189
정답 및 해설	217

칼럼

8번 문제의 기막힌 우연	037
과학적 근거의 짚기	061
국어의 사주팔자	094
문제집의 불편한 진실	136
기본은 흔들리지 않는다	159
4800초의 시간 컨트롤	187
2014년 수능 시험의 법칙 적용 쾌거!	215



Rule 7 Message!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어떠한 책도 그 책만으로 여러분의 국어 점수를 올려줄 수 없습니다. 국어 점수는 언어적 감, 국어 지식, 풀이 노하우 등 다양한 학습이 고등 사고를 거쳐 나오는 종합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본 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 교재에 Plus Item 교재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본 교재에 제시된 국어 시험의 7가지 법칙은 어쩌면 국어 학습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법한 것들입니다. 지문을 읽기 전에 느끼는 무의식적인 문제 풀이의 감을 학습의 테마로 했으며 지문을 바탕으로 하는 기존의 풀이 방법 및 기술서류의 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각 문제의 지문은 생략하고 해설 편에 별도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문 없이 문제를 풀기 때문에 3일 만에 책을 마스터 할 수 있습니다.

본 교재에서 소개되는 7가지의 법칙이 수학 공식처럼 100% 통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도로 주관적인 국어 과목에 높은 확률의 규칙성을 이론화·유형화한 것은 새로운 시도이며 국어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는 유용한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이지만 수능(80%)을 중심으로 중3, 고 1~2 성취도 평가 및 국어교사 선발문제까지 확대하여 폭 넓은 시기(1994~2014)의 기출 문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유는 국어 시험의 법칙이 특정시기, 특정시험에 한정되지 않고 나타남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장에서 자신의 국어 지식을 100% 쏟아 낼 시험의 감 혹은 문제 풀이의 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책으로 온라인으로 여러분의 부족한 감(感)을 완성해 드리겠습니다.



message continue

<http://cafe.naver.com/rule7>

Rule 7 사용방법 & 주의사항

1. 각 Rule의 안내문제를 먼저 읽고 해당 연습문제를 풀어봅니다.
2. 연습문제는 A, B, C 세 단계로, 한 단계를 풀고 반드시 해설 확인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 연습문제의 지문은 분량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해설에 별도 탑재했습니다.
4. 연습문제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고민하여 풀어야 시험의 감(感)을 제대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수능 시간을 고려하여 문제를 푸는 것은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를 풀 때만 필요한 것입니다.
5. 연습문제 채점 후 틀린 개수에 너무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해설을 통해 문제 풀이의 감을 충분히 습득하시길 바랍니다.
6. 교재에 소개된 시험의 법칙, 시험의 원리, 출제 지침 등은 국어의 감각과 문제 풀이의 시야를 넓혀주는 도구이니 이들은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국어에는 주관적인 학문 특성상 객관적인 수학처럼 모든 문제에 적용되는 절대 불변의 공식은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길 바랍니다.
7. 본 교재의 학습 목적이 여러분의 평소 국어 학습에 시험의 감(感)과 문제풀이의 넓은 안목을 더해 실전 시험에서 최상의 결과물을 만드는 것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Rule 7 event!

- 하나, 교재 학습 후 친구에게 추천할 경우 (카페에 구매자, 추천인 ID 등록)
- 둘, 교재 학습 후 후기를 작성할 경우
- 셋, 교재의 오류를 신고할 경우 (오타, 정답오류, 해설오류 등)

참여 수험생 모두에게 문화 상품권(만원 상당)을 증정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Rule 7 카페에서 상세 안내

▶ <http://cafe.naver.com/rule7> (자료 업데이트, Q & A, 국어 전문 칼럼)

시험의 법칙



Rule 2

[선지 오류] 유형

출제 빈도 : ★★☆☆

정답 접근성 : ★★☆☆

국어 시험에서 선지 자체가 국어 혹은 일반 상식에 비추어 잘못된 경우가 있다. 이때 문제가 부정형 발문일 경우 잘못된 선지가 답일 가능성은 거의 100%이다. 이를 유형화하여 학습하면 문제 풀이의 감(感)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 문제의 제작 원리와 출제자의 심리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Q 다음 글에 나타난 (생략)?

- 지문 생략 -

- ① 수업 직전에 예습하는 습관을 갖는다.
- ② 집중이 잘 안 되면 잠시 쉬었다 공부하는 것이 좋다.
- ③ 항상 뚜렷한 목표를 생각하면서 공부한다.
- ④ 계획을 세우고 규칙적으로 공부한다.
- ⑤ 한 과목보다 두 과목을 동시에 공부하는 것이 좋다.

발문의 일부도 생략

지문은 물론 첫 번째 시험의 법칙인 **【발문-선지】**에서 강조한 발문의 핵심정보마저 없다. 정답은커녕 정답으로 예상되는 것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발문이 긍정형인지 부정형인지 즉, 적절한 것을 원하는지 적절하지 않은 것을 원하지도 알 수 없다. 다행히 선지 내용은 온전하다. 일단 이것이라도 살펴보자.

① 수업 직전에 예습 하는 습관을 갖는다.	⇒ (상식적으로) 맞은 말
② 집중 이 잘 안 되면 잠시 쉬었다 공부하는 것이 좋다.	
③ 항상 뚜렷한 목표를 생각하면서 공부 한다.	
④ 계획을 세우고 규칙적으로 공부 한다.	
⑤ 한 과목보다 두 과목을 동시에 공부하는 것이 좋다.	⇒ 비상식적

각 선지의 핵심어(예습, 집중, 공부)를 보니 위 지문은 ‘학습’을 제재로 ‘효율적인 학습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혹시 이를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선지 ①~④는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⑤는 비상식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문이나 발문의 내용이 무엇이든, 얼마나 있든, 심지어 없더라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선지의 내용 자체가 일반적인 생각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선지 ⑤, 한 과목만 집중해도 그 과목을 제대로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두 과목을 동시에 공부하는 것은 시도조차도 어렵고 집중을 방해해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아도 안다. 주변에 국어와 수학책을 각각 한 장씩 넘기며 공부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답이 선지 ⑤로 예상되며 발문은 ‘효율적인 학습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 어울린다. 다만 지문을 아직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⑤를 답으로 100% 확신할 수는 없다. 하지만 수능에서 부정형(적절치 않은) 발문에 선지가 일반상식을 벗어난다면 그것이 정답이 될 확률은 100%에 가깝다. 이것이 바로 국어 시험의 2번째 법칙인 【선지 오류】의 법칙이다.

II. 선지-오류의 법칙

- 1) 발문이 부정형임을 확인한다.
- 2) 선지를 배경지식과 일반상식으로 확인해본다.
 - ▶ 배경지식이나 일반상식으로 잘못된 선지는 100% 정답이다.

수능은 초·중·고 국어교육과정의 종결자격인 시험이다. 위와 같이 상식적으로 간단히 풀리는 문제가 과연 나올까?

01

안내 문제

〈보기〉의 그림을 보면서 ‘효과적인 독서’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한다. ‘재생’을 ‘독서’라고 가정하고 연상했을 때, ①~⑤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007 9월 평가원 |

- ① 빨리 감기 : 독서하면서 필요한 정보가 있는 곳을 찾아가려면 건너뛰며 읽을 수도 있다.
- ② 되감기 : 다 읽었는데도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앞부분으로 돌아가 다시 읽기도 한다.
- ③ 정지 : 독서를 하다가도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그만둘 수도 있다.
- ④ 일시 정지 : 독서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읽기를 잠시 멈출 수도 있다.
- ⑤ 녹음 : 독서를 할 때에는 음악을 함께 듣는 것이 좋다.

앞선 도입문제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 비록 모의수능이지만 위와 같이 간단히 풀리는 문제가 이미 출제되었다. 상식적으로 선지 ⑤가 적절하지 않다.

⑤ 녹음 : 독서를 할 때에는 음악을 함께 듣는 것이 좋다. ⇒ 비상식적

이유는, 뇌가 두 가지 활동(독서+음악듣기)을 동시에 하는 것보다 한 가지 활동(독서)

을 하는 것이 더 집중도 잘되고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혹시 ‘나는 음악을 들을 때 독서가 더 잘되던데’라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는 책만 보기에 집중이 안 돼서 음악이 필요한 것이다. 집중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 독서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

【선지 오류】의 법칙 문제는 선지 자체의 오류도 답의 근거가 된다!

【선지 오류】의 법칙에 관련된 출제 지침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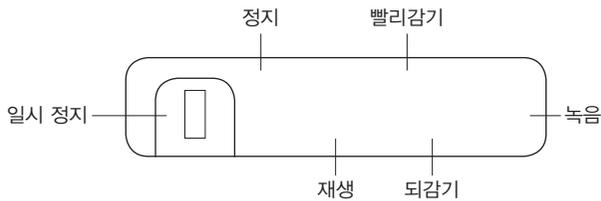
객관식 출제 지침 中

“지문 혹은 발문과 상관없는 선지 자체의 내용 오류로 인해 정답의 단서가 되지 않게 주의한다.”

출제자는 지침을 준수하며 지문을 통한 수험생의 능력 평가를 의도하였으면 최소한 선지 자체의 내용을 오류 없이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오류가 수능을 포함한 여러 국어 시험에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수험생은 이를 적극적으로 인지하여 문제 풀이의 감(感)을 극대화해야 한다.

생략된 그림 자료와 함께 정답을 다시 확인해 보자.

지문 & 해설



➔ 그림은 음악 재생 컨트롤 메뉴로 독서하기를 음악 듣기로 비유한 것이다. 음악 감상 중 선지 ①의 빨리 감기는 독서에서 읽지 않은 다음 부분을 미리 보는 것으로, ②의 되감기 기능은 독서에서 읽은 부분을 다시 보는 것으로 비유된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음악이 아니면 ③처럼 음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또한, 잠시 가사를 생각해 보거나 메모를 한다든지 하여 음악을 ④처럼 일시 정지하였다가 다시 이어서 들을 수 있다. 이는 독서를 아예 그만두거나 잠시 멈추는 것으로 비유된다. 하지만 ⑤의 녹음은 음악 듣기가 아니다. 이는 외부의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게 저장하는 것이므로, 독서하면서 음악 듣는 것으로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2
안내 문제

〈보기〉는 ‘원형적 심상’을 설명하는 상징 사전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적용하여 ㉠~㉥의 의미를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2003 수능 |

- ① ㉠ 나룻배 : ‘행인’이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나 피안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해 주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 ② ㉡ 불 : 삶을 지탱해 주는 상승의 에너지로서 사랑의 열정을 환기한다.
- ③ ㉢ 물 : ‘죽은 나무뿌리를 적신다’는 것에서 보듯이 소멸과 죽음의 의미를 지닌다.
- ④ ㉣ 나무 : ‘우리’가 함께 선다는 표현으로 보아 초월과 상승의 욕구를 가진 인간의 형상으로 읽어 낼 수 있다.
- ⑤ ㉤ 하늘 : ‘불’로 상징되는 모든 인간적 고뇌가 승화된 정신적 경지를 표상한다.

배점이 높은 중요한 문제도 쉽게!

2003년 수능 당시에 높은 배점(3점)의 문제답게 지문은 물론 〈보기〉까지 해석해야 답을 찾도록 출제자는 의도하였다. 하지만 【선지 오류】의 법칙으로 지문과 〈보기〉없이도 문제를 풀 수 있다. 선지 ③을 문학적 배경지식이 아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③ 물 : ‘죽은 나무뿌리를 적신다’는 것에서 보듯이 소멸과 죽음의 의미를 지닌다.

나무는 물을 통해 생명을 유지한다. 그래서 물이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는 것은 상식적으로 나무를 살리려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기 때문에 소멸과 죽음의 의미를 지닌다는 선지 ③은 적절하지 않다.

생략된 〈보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 보기 •

- 작은 배 : 피안의 세계로 건너가는 수단. 부활과 재생의 요람.
- 불 : 수직적, 상승의 에너지. 공격적인 남성. 인간의 생명, 사랑, 육체의 파괴와 소멸, 정화와 재생
- 물 : 수평적, 하강, 모성 혹은 여성, 죽음, 정화와 재생, 순환, 시간의 흐름.
- 나무 : 인간의 형상, 인간의 상승 욕구, 초월의 의지, 크고 넉넉한 인격.
- 하늘 : 공간의 영원성, 고고한 정신, 신(神), 순결, 무(無), 부재(不在).

‘물’은 재생뿐만 아니라 죽음의 의미도 있다. 그래서 죽은 나무뿌리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니 이를 적시는 물도 단순히 부정적인 상징(죽음, 소멸)일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이는 출제자의 함정에 걸린 것이다.

생략된 지문을 통해 정답을 확인해 보자.

지문 & 해설

(가)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밭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

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
십니다그러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낚아
잡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 한응운, 「나룻배와 행인」

(나) 내 마음을 아실 이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 이

그래도 어디나 계실 것이면

내 마음에 때때로 어리우는 티끌과

속임 없는 눈물의 간곡한 방울방울

푸른 밤 고이 맺는 이슬 같은 보람을

보낸 듯 감추었다 내어 드리지

아! 그림다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 이

꿈에나 아득히 보이는가

향 맑은 옥돌에 @불이 달아

사랑은 타기도 하오련만

불빛에 연긴 듯 희미론 마음은

사랑도 모르리 내 혼자 마음은

- 김영랑, 「내 마음을 아실 이」

(다)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아,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숲이 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 (가)의 「나룻배와 행인」은 인내와 희생을 통한 사랑의 실천을, (나)의 「내 마음 아실 이」는 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다)의 「우리가 물이 되어」는 부정적인 것들과 맞서 진정 하나가 됨을 노래한 시이다. (다)에서 ㉠'물'을 가문 어디에서나 좋아한다고 하며 긍정적 시어로 보았기에 '물'을 소멸과 죽음의 부정적 시어로 본, 선지 ㉢은 적절하지 않다.

03 **윗글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보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안내 문제

| 2014 수능 |

- ① (가)를 활용하여, 둘째 단락에서 언급한 상당수의 청소년이 UCC 제작 경험은 없지만, 앞으로 제작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한다.
- ② (나)를 활용하여, 둘째 단락에서 언급한 UCC 제작 활동의 장애 요인 중 제작 기술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점을 부각한다.
- ③ (다)를 활용하여, UCC 제작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UCC 제작 경험이 있는 학생들과 달리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수단이 없음을 셋째 단락에 추가한다.
- ④ (가)와 (나)를 활용하여, 둘째 단락에서 언급한 UCC 제작 기술을 습득한다면 UCC 제작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판단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한다.
- ⑤ (가)와 (다)를 활용하여, UCC 제작 의향은 있으나 실제로 제작해 보지 못한 학생들이 향후 UCC를 제작하게 된다면, 창의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셋째 단락에 추가한다.

상식이 곧, 정답이다!!!

이전 문제보다 선지가 길어져서 복잡해 보인다. 하지만 이번 문제도 **상식으로 지문**은 물론 <보기>도 읽지 않고 정답을 골라낼 수 있다.

선지 ㉢은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다.

UCC 제작 경험이 있음 ⇒ 스트레스 해소의 수단이 있음

UCC 제작 경험이 없음 ⇒ 스트레스 해소의 수단이 없음

UCC 제작 경험이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덜어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가능하다. 왜냐하면, UCC는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만드는 과정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UCC 제작 경험 여부와 **스트레스 해소의 수단 여부**는 직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를 직접 상관관계가 있는 듯 진술한